

## ■ 서양 음악의 시작

- 고대 그리스 (기원전 5세기 성행 ~ 기원전 320) 음악

→ 서양음악의 뿌리

- 음악 = 소리 예술 + 수학과 천문학에 밀접하게 연관된

이론과학

- 음악적 목적 = 윤리적, 교육적 목적에 종속됨

→ 중세 음악관의 바탕이 됨

→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줌



더블 아울로를 부는 여인

## ● 그리스의 음악적 사고의 영향

- 중세의 일반적 음악관: 음악을 수리적 측면에서 봄, 음악의 윤리적 가치, 음악의 개념

이론: 문자 기보법, 협화음 이론, 음계론

중세 이후: 르네상스, 고전시대, 정률음악, 오페라, 음악극

← 그리스의 예술적 이상을 재현하려는 노력의 산물

## ● 고대 그리스의 음악관

음악학적 사고: 과학적으로 규명, 철학적으로 사색

피타고라스 → 플라톤 → 아리스토텔레스 → 아리스토크세누스 → 유클리드를 거치며

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옴



피타고라스  
기원전 6세기 후반 활약



플라톤  
기원전 429경-347



아리스토텔레스  
기원전 384-322



아리스토크세누스  
기원전 375-360 사이 출생



유클리드  
기원전 300 활약

## ◆ 피타고라스 (기원전 6세기)

### - 피타고라스 학파:

#### - 오르페우스 교의 영혼 윤회설을 받아들임

영혼은 원래 신성을 소유, 육체는 영혼의 무덤

속죄와 금기를 통해 정화를 하면 육체에서 해방되어 신성을 되찾음

금욕, 금식, 침묵,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이 원칙

#### - 음악과 철학에 의한 정화 필요

영혼을 정욕이나 속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함

육체도 생리학적인 면에서 순결해져야 영혼이 구제받음

육체의 순결화를 위해 의학에 관심

→ 위세척 (건강에 미치는 가치를 역설)



피타고라스





## ◆ 피타고라스 (기원전 6세기)

- '음악학'의 시조: 수를 만물의 근원으로 봄
  - 홀수와 짝수 개념 정립 = 수론의 기본적 개념이자 우주의 기본 원리로 봄
- 정수론, 기하학, 천문학, 음악을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봄
  - 음악을 감성적 예술이 아닌 수학의 한 지류로 봄

- 음계론을 수학, 물리학, 천문학과 연계시켜 전개함
- 우주, 자연, 음악적 소리의 관계를 수적 비례로 설명

**협화음:** 1, 2, 3, 4로 형성되는 비율의 현 길이에 의해

산출되는 음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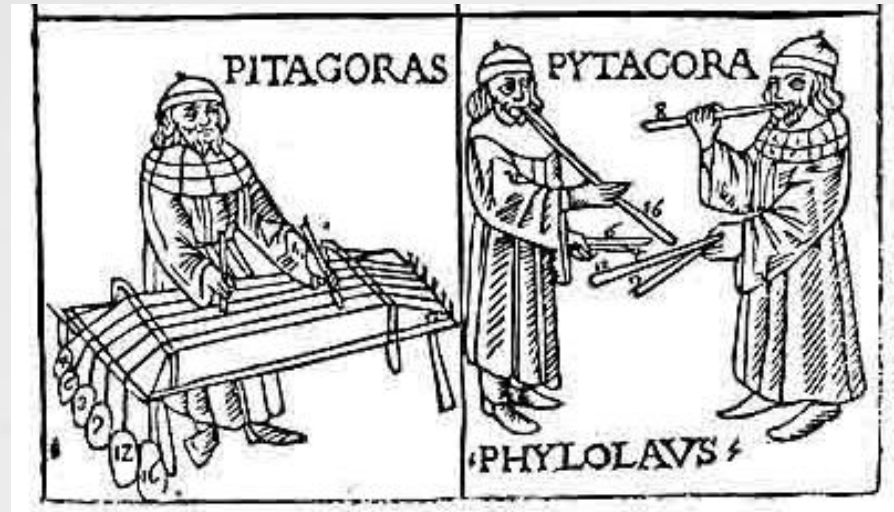
협화음의 등급은 수적 비례의 단순성에 따름

옥타브(2:1) > 완전 5도 (3:2) > 완전 4도(4:3)

**불협화음:** 수적 비례가 복잡하게 산출되는 음정



피타고라스 (라파엘의 <아테네 학당>의 일부분)



음정의 수적 비율을 시험하는 피타고라스

#### ◆ 음악 분류법

- 하모니는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수적 비율에 근거함, 자연의 원리
- 음악은 우주나 자연의 모방 형태로서 수적 관계에 기초를 둔 하모니를 반영
- 천체의 음악, 인간의 음악, 악기의 음악으로 구별

→ 중세 음악관에도 영향을 줌

## ● 에토스론

- 음악은 인간의 성격(에토스)과 행동에 직접적이면서 깊은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짐
- 음악의 도덕적 가치에 큰 의미 부여
- 음악 교육의 중요성 인식
- 음악은 인간의 성품을 개선할 수도 타락시킬 수도 있음
- 영혼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짐
  - 요소들의 구성 비율에 따라 인간의 성품이 달라짐
  - 올바른 비율로 구성되어 있을 때 올바른 성품이 됨
  - 요소들의 상호관계는 리듬, 선법, 악기의 음색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



기타라를 연주하는 여인

## ● 플라톤

- 선한 것 = 아름다운 것
- 모든 예술은 이상국가 건설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
- 음악이 모든 예술 중 가장 중요함
  - ←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열정을 진정시키는 힘이  
다른 예술보다 크기 때문
-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에게 덕을 교육시킬 수 있는 힘
  - 음악 교육은 덕과 도덕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방법
- 『국가』 (기원전 380경):
  - 절제, 용기, 자유 의지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음악만을 사용해야 함



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
(라파엘의 <아테네 학당>의 일부분)

## ◆ 음악의 목적

- 윤리적 목적과 일치
- 음악은 인간의 성품에 미치는 결과에 의해 구별, 또 그 가치로 평가됨
- 아름다운 음악 = 도덕적으로 훌륭한 음악을 의미



## ● 음악과 체조

- 플라톤: 음악과 체조 → 청소년 교육의 기본적인 훈련 과제
  - 음악: 조화로운 성격 형성, 인간의 열정을 평정하는 역할
  - 체조: 건강한 신체, 강한 기질, 굳센 의지력과 인내력 키워줌
- 영혼과 육체를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긴장과 완화의 적절한 정도 제공

## ❖ 완벽하고 조화로운 음악가

= 음악과 체조를 잘 조화시켜 적용하는 사람

## ◆ 아리스토텔레스

- 음악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함
  - 그러나 모든 종류의 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
  - 윤리적 가치 + 도덕적 가치
- + 오락과 지적인 향락으로서의 음악적 가치



플라톤, 세네카, 아리스토텔레스



## ■ 중세의 유럽

- 중세: 476 ~ 1450년경

- '중세'(Middle Ages, Medieval times)라는 명칭

←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붙인 명칭

그리스, 로마의 고전 시대와 자신들의 근대 시대 사이의

정체되고 단절된 중간 시대로 봄

- 8세기 말, 샤를마뉴 대제가 학문 부흥 운동을 주도,

문화적, 종교적 통합을 이룸

→ 서유럽인들의 지적,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 마련

- 12세기부터 유럽 각지에 도시들이 발흥, 대학들이 설립됨

→ 문화적 활동과 학문적 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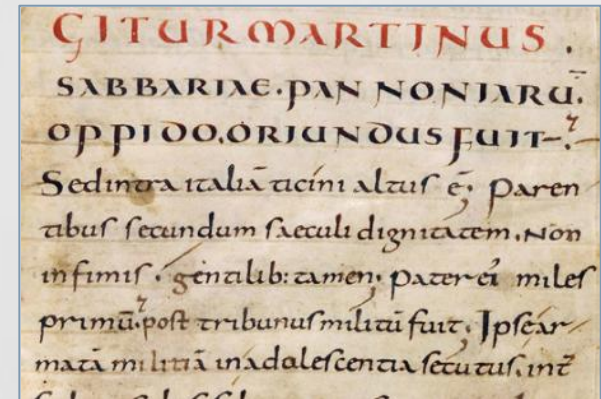
- 음악의 경우: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음악의 발생,

음높이 기보체계, 음악 형식, 장르

기법, 이론들이 중세 시대에 시작, 발전



<롤랑의 노래>의 삽화



카롤링거 소문자체  
영어 소문자체

● 중세와 가톨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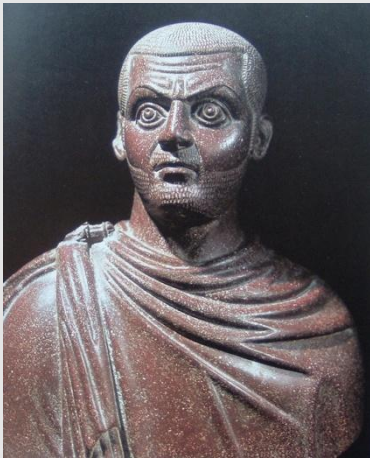
- 가톨릭은 중세 유럽을 형성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정신적 실체
  - 정치, 경제, 사회, 예술, 문화, 사상 등이 가톨릭의 조직, 교리, 사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됨
- 1세기부터 전파 시작
- 3세기부터 교세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
- 3세기 말에 로마 제국 내에 강력한 가톨릭 공동체들이 생김

● 가톨릭교 박해

- 4세기 초까지 여러 차례 박해를 받음  
(카톨릭 교인들의 황제 숭배와 군복무 거부, 로마 전통신들의 제의에 참배 기피)
  - 제국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불법 종교로 간주함
-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, 갈레리우스 황제의 박해
  - 탄압과 박해
    - 교회를 연합시키고 신앙을 강화시킴, 가톨릭을 널리 알림



디오클레티아누스



갈레리우스

- 갈레리우스 황제: 311년 관용령 선포
- 콘스탄티누스 대제: 313년 밀라노 칙령 공포,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 허용
- 테오도시우스: 392년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칙령 공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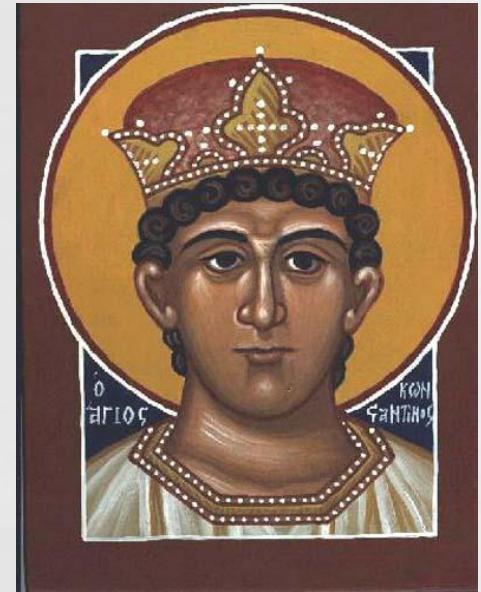
엄격한 이교도 정책 실시

모든 이교 숭배와 의식을 금지시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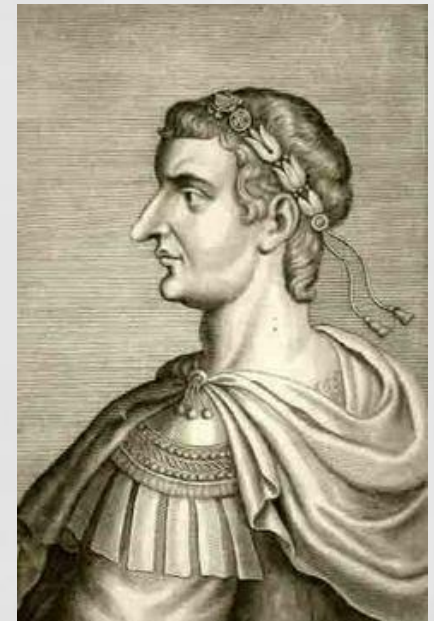


테오도시우스 황제와  
성 암브로스

콘스탄티누스 대제



테오도시우스 1세





## ● 수도원 형성

- 가톨릭이 국교로 정해지면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남
  - 도시마다 교회가 건설됨
- 일부 열성적인 교인들은 속세를 떠나 은둔하면서 묵상과 기도, 육체적이 고행에 전력하는 은둔자의 삶을 택함
- 수도사, 수사(monachus) = '혼자 사는 사람', '은둔자'라는 의미
  - 단독 생활에 따르는 일상적인 불편과 정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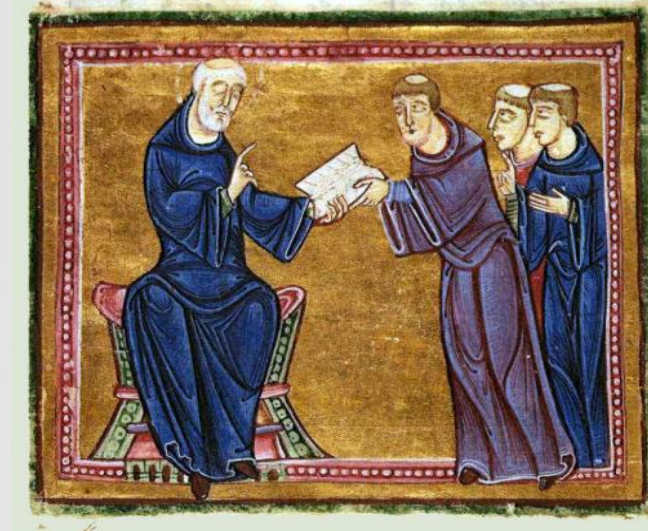
### 수도 공동체 형성

→ 수도원 건립 (3세기 후반, 이집트 중부, 테베에 수도원 창설 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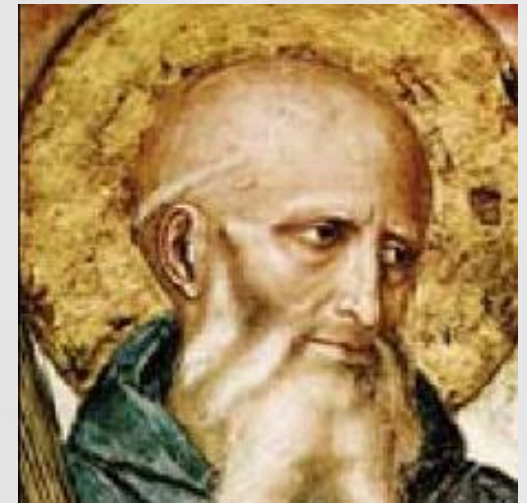
→ 수도회칙이 만들어짐

## ◆ 성 베네딕투스(480경~546년 이후 사망)

- 529년경 몬테 카씨노에 수도원 세움
-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율 만들



수도사들에게 수도회칙을 전해주고 있는 성 베네딕투스



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투스

## ◆ 베네딕투스 수도회칙

- 중세 동안 서방 수도 생활의 규범이 됨
- 수도원 입단을 위한 3가지 서약: 청빈, 정결, 순명
- 기도, 묵상, 독서 등 종교적 사항 및 일상적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
- 계율은 서문과 73장으로 구성
- 일반적으로 4~5 시간의 기도, 3시간의 독서, 6~7 시간의 노동
- 음악과 관련되어 규정된 사항: 성무일도 (일상 기도의식)

몬테 카시노의 베네딕투스 수도원





## 베네딕투스회 수도원의 여름 일상 시간표

오전 2시: 새벽기도 (1시간), 다시 취침

오전 6시: 아침기도, 아침식사

오전 7시: 일시경 (30분), 회의,  
노동 또는 공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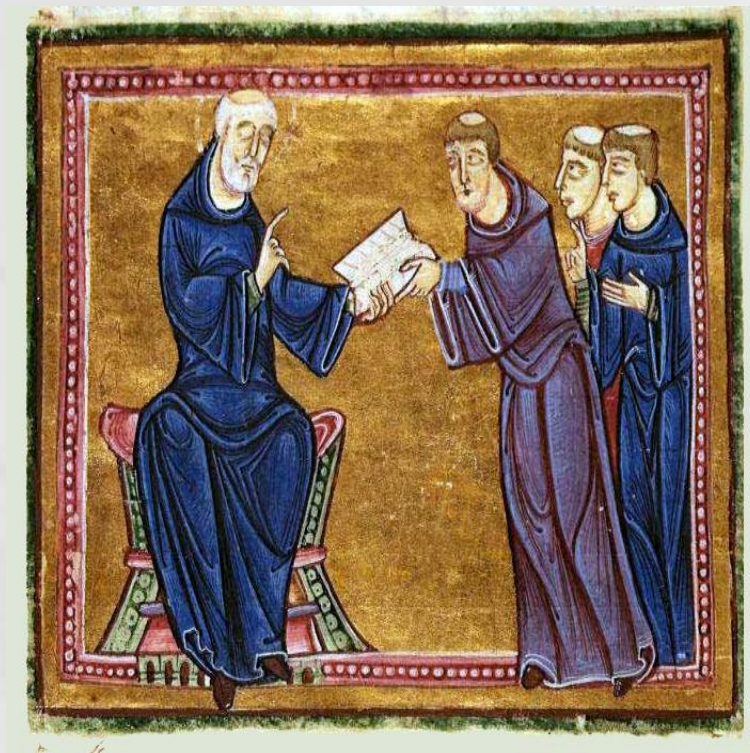
오전 9시: 삼시경, 미사, 노동 또는 공부  
정오: 육시경, 점심 식사, 낮잠 또는  
침묵의 독서

오후 3시: 구시경(30분), 노동 또는 공부

오후 5시: 저녁기도 (30분), 노동 또는 공부

오후 6시: 수도원장의 설교, 저녁 식사, 대화의 시간

오후 7시: 끝기도(30분), 취침





## ◆ 필사실

- 오리, 까마귀, 백조, 독수리, 펠리컨 깃이 필사도구
- 집거위 수놈의 왼쪽 날개의 3번째나 4번째 깃이 가장 우수함
- 양피지 사용
  - 한 마리에 4장 나옴
  - 유연성과 내구성이 뛰어나, 양면 사용 가능

재활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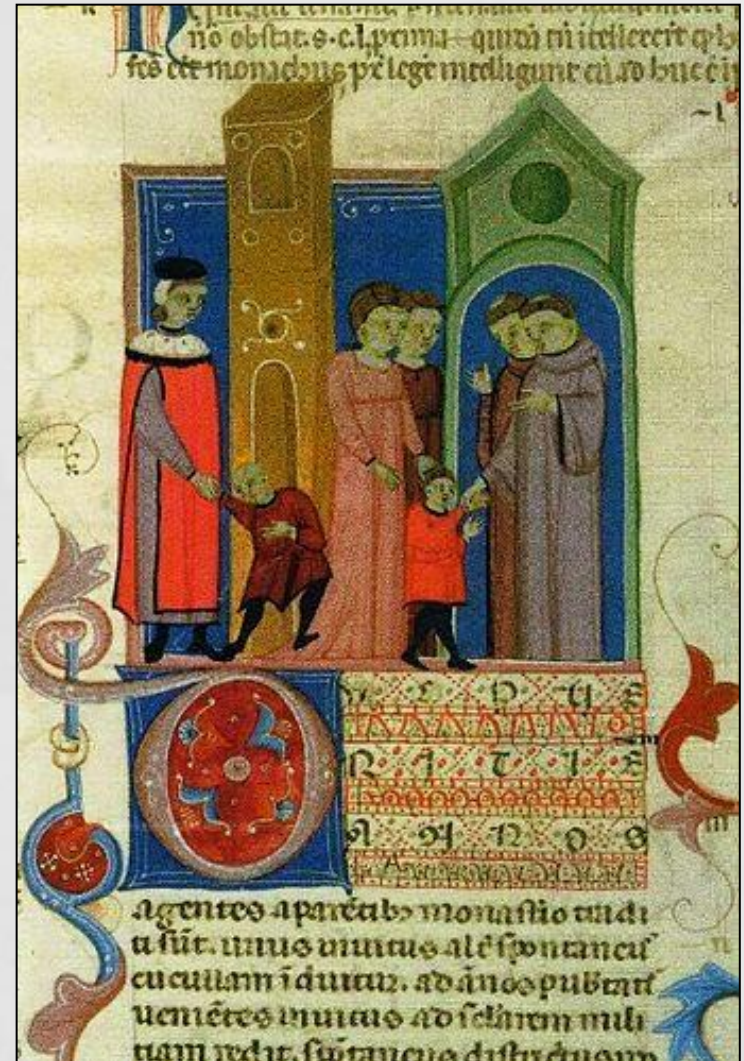


중세 시대의 필사실



## ◆ 수도원:

- 수도자와 수녀, 세속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도서관 구비
- 서적 출판을 위한 장소
  - 중세 초부터 12세기까지 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된 중심지
- 베네딕투스 수도회칙에 의하면 독서, 필사는 수도자의 조건
- 수도 성직자는 당시에 거의 유일한 지식인



수도원 학교의 모습



## ● 중세의 대학과 자유학예

- 1050 ~ 1300년: 도시와 상업 부흥, 거대한 성당과 수도원 건립, 대학 설립
  -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 발전, 종교적, 학문적 발전
- 12세기부터 성당학교가 외부 사람들의 교육 담당 (빈부 차별 없이 무상교육 실시)
  - 파리, 샤흐트르, 랑스의 성당학교가 유명
- 12세기 중반부터 대학이 형성됨
  - 볼로냐 대학, 옥스퍼드 대학, 파리 대학, 케임브리지 대학



중세의  
대학 강의 모습





- **University** (Universitas = '조합'이라는 의미)

- 학생 또는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합

← 교회나 세속의 권력으로 부터 자신의 이익과 권리 보호, 자율성 주장을 위해 만든 조합

볼로냐 대학은 학생 조합, 파리대학은 교수 조합으로 출발

- 점차 교양학부와 법학, 의학, 신학 전공 중 하나 이상의

학부조직을 갖춘 교육기관 의미



중세의  
대학 강의 모습





- **College** (collegium; 학료, 학교 기숙사)

→ 숙소와 강의실을 겸비한 시설

파리 대학 내의 소르본느 학료가 최초의 학료

← 소르본느가 신학박사과정 학생 16명을 위해

파리 대학 내에 신축, 기증한 학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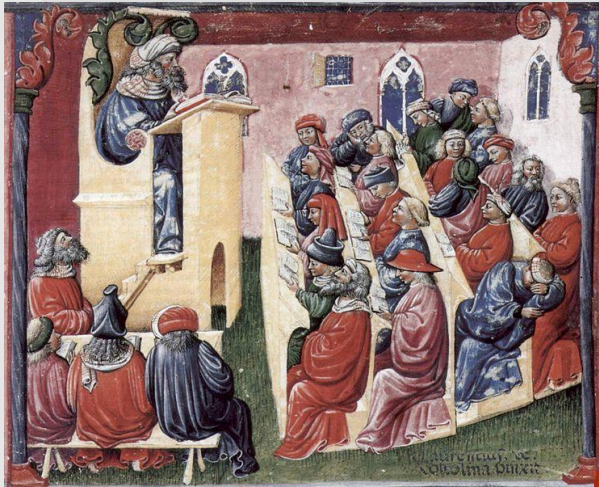


소르본

1550년의 소르본느 대학과 수업 장면







중세 대학의 수업 장면



파리대학의 교수회의





## ● 자유학예 (교양학부 교과목)

- 마르티아누스 카펠라가 자유학예를 7개의 교과목으로 정립시킴

- 9세기 카롤링거 왕조시대에 교과 과정으로 정착됨

- **콰드리비움**: 자연과학 4과목: 정수론, 기하학, 천문학, 음악

**트리비움**: 인문학 3과목: 문법, 수사학, 논리학

- 콰드리비움이라는 명칭은 보에티우스가 처음 사용



7개의 자유학예: 정수론, 기하학, 음악, 천문학, 논리학, 수사학, 문법



문법, 수사학, 논리학, 음악, 정수론,  
기하학, 천문학

중앙: 철학, 소크라테스와 플라톤

## ● 보에티우스와 중세 음악관

- 음악구조의 핵심 구성요소는 수, 비율, 비례
- 음악은 예술인 동시에 학문
- 수도원과 대학에서 음악은 학문이론으로 가르침
- 중세의 음악적 지식은 보에티우스에 의해 전해진  
고대 그리스인의 음악이론에 기초



### - 보에티우스의 『음악의 원리』

-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음악관과 음악이론을 분석 및 정리
- 유럽의 대학과 수도원에서 수세기 동안 음악교과서로 사용됨
- 그리스인의 음계이론 체계, 문자 기보법, 피타고라스의 협화음이론, 테트라코드 체계 등을  
중세에 처음 소개한 이론서

→ 음악의 과학적 측면을 더욱 강화시킴

→ 중세 음악관 확립에 큰 기여





보에티우스의 『음악의 원리』에 나와 있는 자유학예 그림  
철학이 보에티우스에게 7 자유학예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



## ● 음악 분류법:

피타고라스처럼 천체의 음악, 인간의 음악, 악기의 음악 세 가지 범주로 분류

천체의 음악: 대우주가 만들어내는 음악 = 대우주의 하모니

→ 별과 행성의 움직임, 4계절의 규칙적인 반복, 4가지 원소(불, 흙, 공기, 물)의 혼합에서 나타나는 수적관계

인간의 음악: 인간의 정신과 육체, 즉 소우주의 하모니

→ 육체와 영혼 및 그들의 각 부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

악기의 음악: 질서의 원리를 음정의 수적비례에서 보여줌, 성악음악과 기악음악

→ 중세인에게 음악이란 감정의 표현이기보다는 지식의 대상



→천체의 음악, 인간의 음악  
악기의 음악

보에티우스, 피타고라스,  
플라톤, 니코마쿠스 →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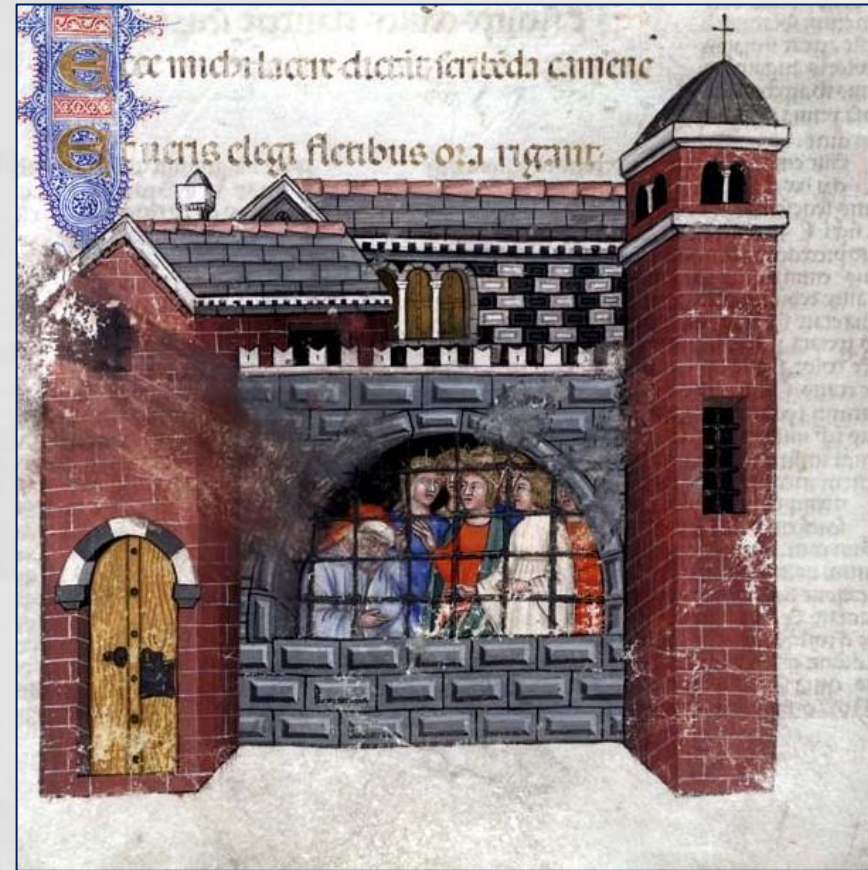
## ● 음악의 고유한 목적

- 수학적 탐구를 통한 진리 탐구 + 인간을 향상시키는 윤리적 힘을 소유

→ 신체와 정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수론, 기하학, 천문학을 능가



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보에티우스



감옥에 있는 보에티우스



## ● 무지쿠스와 칸토르

- 음악가를 연주가, 작곡가, 이론가로 구분

음악학문보다 음악예술은 하위

이론지식보다 창작능력이 하위

→ 진정한 음악가는 음악의 구조와 본질을 충분히

이해하고 이성적

원칙에 따라 음악을 판단하는 음악이론가

→ 노래, 악기 연주, 작곡 등은 무지카가 아닌 직능적인 기술로

간주

→ 무지쿠스(musicus) = 음악이론가

칸토르 (cantor) = 가수나 연주자





## ● 중세의 음악교육

칸토르를 위한 음악교육: 연주라는 실제적 목표를 위한 훈련

→ 성가 레퍼토리 암기, 기보체계 습득, 음계이론

무지쿠스의 음악교육: 이론 교육

→ 철학이나 신학 공부를 위한 지적인 준비로서의 음악교육

- ❖ 수학의 한 부분으로서의 음악, 3단계의 음악, 학문으로서의 음악 등 중세의 일반적인 음악관은 그리스인들로부터 이어받았고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짐

